



팔월의 현내포구(10호F), 양광명 / 도성건축사사무소

타는 듯이 뜨거웠던 지난 여름  
울진의 작은 포구 어망수선 작업장 그늘에서  
질푸른 바다는 바라보다  
내 존재를 잊고 바다와 함께  
하나가 되었다.